3 대 0 … 이라크 '침대'에 누울 시간 없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팀 일정

FIFA WORLD CUP Qatar2022 현지시간 기준, *홈 경기

21년	9월 2일	*이라크전	0 : 0	무
	9월 7일	*레바논전	1 : 0	승
	10월 7일	*시리아전	2 : 1	승
	10월 12일	이란전	1 : 1	무
	11월 11일	* UAE전	1 : 0	승
	11월 16일	이라크전	3 : 0	승
22년	1월 27일	레바논전		
	2월 1일	시리아전		
	3월 24일	*이란전		
	3월 29일	UAE전		

A조 현재순위	승	무	패	승점	득실차
1 이란	5	1	0	16	+9
2 한국	4	2	0	14	+6
3 UAE	1	3	2	6	-1
4 레바논	1	2	3	5	-2
5 이라크	0	4	2	4	-6
6 시리아	0	2	4	2	-6

B조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일본

자료/ 아시아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6차전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자신의 A매치 30호골을 성공시킨 뒤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작은 자신은 10년 전인 2011년 1월 18일 이곳에서 열린 2011 AFC 카타르 아시안컵 인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데뷔골을 성공시킨 손흥민이 하트 세리머니를 하며 기뻐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亞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6차전

벤투호, 이라크 완파하며 4승2무 조 2위…카타르행 순항

손흥민 10년 전 A매치 데뷔골 터트린 곳서 30호골 기록

한국 축구가 이라크를 완파하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7일 카타르 도하의 타니 빈 자심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6차전에서 전반전 이재성(마인츠), 후반전 손흥민(토트넘)·정우영(프라이부르크)의 연속골로 3-0으로 크게 이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5위인 한국은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쌓았고, 시리아를 역시 3-0으로 누른 이란(승점 16·5승 1무)에 이어 조 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와 5차전(1-0)에 이어 무실점 연승을 기록하며 최종예선 6경기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무엇보다 3위로 올라선 UAE(승점 6·1승 3무 2패)에 승점 8이 앞서 카타르행에 성큼 다가섰다. 최종예선에서 A·B조 1, 2위는 본선에 직행한다.

과거 한국을 지휘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FIFA 랭킹 72위 이라크는 우리나라에 져 5위(승점 4·4무 2패)로 한 계단 미끄러졌다.

벤투 감독은 직전 UAE전과 똑같은 선발 라인업을 내세웠다.

부상으로 선발되지 못한 황의조(보르도) 대신 조규성(김천)이 다시 한번 벤투호 선봉장으로 나섰다.

측면 공격은 손흥민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책임졌고, 공격 2선 중앙에는 이재성과 황인범(카잔)이 배치됐다. 정우영(알사드)이 허리를 맡았다.

포백 수비라인에는 김진수(전북), 권경원(성남), 김민재(페네르바체), 이용(전북)이 섰고 김승규(가시와 레이솔)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벤투호는 매우 공격적이었던 UAE전보다는 조심스럽게 이라크전에 임했고, 전반 33분 이재성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이용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왼쪽에서 쇄도해 들어가던 김진수가 골 지역 오른쪽에 있던 이재성을 향한 논스톱 패스로 연결했다. 이재성은 왼발 땅볼 슈팅으로 1-0을 만들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후반 18분 3명을 무더기로 더 교체하자 벤투 감독은 후반 21분 이재성을 빼고 더 공격적인 정우영을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이 승부수가 추가골로 이어졌다.

후반 23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정우영이 골지역 왼쪽에서 문전으로 패스를 보냈고, 이를 슈팅으로 마무리하려던 조규성을 알리 아드난이 파울로 방해했다.

심판은 비디오판독(VAR) 끝에 아드난에게 옐로카드를 주며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골망을 흔들었지만, 슈팅 직전 정우영이 페널티지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다시 페널티킥을 차라는 판정을 내려졌다.

손흥민은 '두 번째' 페널티킥도 성공시켜 2-0을 만들었다. 손흥민이 96경기 만에 넣은 A매치 30호골이었다.

후반 33분에는 정우영이 자신의 A매치 데뷔골로 벤투호 대승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 이란은 요르단 암만에서 치른 시리아와 경기에서 3-0으로 이기고 선두를 질주했다.

올해 A매치 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벤투호는 내년 1월 말 다시 소집돼 최종예선 7, 8차전을 소화한다. 7차전은 1월 27일 레바논, 8차전은 2월 1일 시리아를 상대로 치른다.

/연합뉴스

"'중장거리 타자'로 돌아오겠다"

입대 앞둔 KIA 최원준

'단일 시즌 최다 수비 이닝' 뿌듯
기량 늘고 전 경기 출전 뜻깊어
돌아와 팀 가을야구 위해 뛰고파

KIA 타이거즈의 최원준이 '중장거리 타자' 변신을 위해 군대로 떠난다.

KIA 최원준에게는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한 가을이다. 한 시즌에 대한 아쉬움과 내년 시즌에 대한 고민으로 보내던 앞선 시간들과 달리 유니폼을 벗고 '보통 청년'으로 살고 있다.

군 입대를 결정한 그는 상무 야구단에 지원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을 소화하는 등 바쁜 시즌을 보냈던 만큼 이번 마무리캠프 대신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원준은 17일 잠시 야구장을 찾아 오랜만에 동료들을 만났다.

최원준은 "갑자기 백수가 된 느낌이다"라면서도 "계속 놀고 있다.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 같다"고 근황을 전했다.

올 시즌 143경기에 출전한 최원준은 타율 0.295(589타수 174안타) 4홈런 44타점을 기록했다. 우익수로서 강한 어깨도 유감없이 발휘하며 1244이닝이라는 KBO 단일 시즌 최다 수비 이닝 기록도 작성했다.

윌리엄스 전 감독과 김종국 수석코치는 나란히 최원준을 야수 MVP로 꼽기도 했다.

최원준은 "생각보다는, 욕심보다는 부족한 결과지만 지난 5년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며 "다치지 않고 전체 시즌을 뛴 것은 만족하면서도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2021시즌을 평가했다.

'수비 이닝'은 자신이 생각했던 가치 실현을 위한 첫 단추가 된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최원준은 "항상 생각했던 게 주전 선수가 되면 110~120 경기에서 잘하는 것보다 팀을 위해 144경기에 꾸준히 출전하자는 생각이었다. 나를 보러 와주시는 팬분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출전하는 게 뭔가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이룬 것 같아서 뜻깊다"고 언급했다.

또 "이렇게 1년 동안 풀로 뛰다 보니까 우익수뿐만 아니라 외야 수비도 편해졌다. 수비가 부족한 선수라는 선입견을 지운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수비 부분에서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다"고 이야기했다.

가장 좋은 시즌을 보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지만 최원준은 입대를 선택했다. 당장 1~2년이 아닌 더 먼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최원준은 "해보고 싶은 게 많다. 당장 성적이 나오는 곳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라서 입대를 결정했다"며 "군대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스스로 발전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올해는 1번 타자를 하면서 단타 위주의 스윙을 많이 했는데 군대 다녀와서는 중장거리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보강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야구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져서 돌아오는 게 그의 또 다른 바람이다.

최원준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싶고, 군대 다녀왔을 때 개인적인 것보다 팀 순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팬들이 많은 사랑과 뜨거운 관심을 주실 때 군대에 가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팬들이 기다리는 선수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다녀왔을 때 팀에 도움이 돼서 꼭 가을야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르헨, 브라질과 무승부…월드컵 본선 진출

아르헨티나가 브라질과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무승부에 그쳤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아르헨티나는 17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산후안의 비센테나리오 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미지역 예선 14차전 홈 경기에서 브라질과 0-0으로 비겼다.

예선 13경기 무패(8승 5무)를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2위(승점 29)를 지켰고, A매치 27경기 무패(17승 10무) 기록도 이어갔다.

다만 승점 1만을 더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은 다음으로 미뤄지는 듯했는데, 같은 날 우루과이가 볼리비아에 0-3으로, 칠레는 에콰도르에 0-2로 패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본선행을 확정했다.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통산 18번째이며, 1974년 독일 월드컵부터 연속으로 13번째다.

아르헨티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34)는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내년 월드컵에서 우승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K리그 승격이냐 강등이냐 '운명의 승부'

12월 8·12일 승강플레이오프

'강등과 승격'을 놓고 벌이는 운명의 승부가 12월 8일과 12일 치러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연맹)은 15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2021시즌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요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 따라 승강플레이오프는 12월 8일 오후 7시, 12월 1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1차전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인 대전하나 시티즌의 홈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2차전은 K리그1의 11위 팀 홈 경기장에서 열린다. K리그1의 강등팀과 11위 팀은 12월 4일 최종전을 통해 가려진다.

K리그1 12위는 자동강등 되고 11위는 대전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승강플레이오프 선수교체인원은 3명이다. 단 22세 이하(U22) 선수가 선발 1명을 포함해 출전선수 명단에 2명 이상 등록돼야 한다.

U22 선수가 선발에 없을 경우 교체 인원은 1명 줄어든다. U22 선수가 출전명단에 2명 미만일 경우 출전 가능한 선수(총 18명)가 1명씩 줄어든다.

이는 올 시즌 K리그2 선수교체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전에 돌입할 경우 1명의 추가 교체가 가능하다.

승강플레이오프에 출전하는 팀의 선수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경기 출장 가능한 선수 수가 15명(골키퍼 1명 반드시 포함) 이상이면 경기가 진행된다.

출장 가능 선수가 15명 미만이면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날 재경기도 불가능할 경우 1차전은 12월 22일, 2차전은 12월 26일로 연기된다.

연기된 날짜에도 경기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으로 인원이 부족한 팀에 0-2 몰수패가 선언된다. 양 팀 모두 확진자 발생으로 출전 인원이 부족하면 연맹이 경기일을 재조정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표준선수계약서 및 규정개정안도 의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